

금호타이어 노사 경영정상화 상생 찾아라

노조 새 집행부 17일 선거...노조원 선택 주목
해의 영업망 붕괴·시장환경 악화 오더 부족
공장 가동률 62%로 톱 떨어져...역대 최저

금호타이어 공장 가동률이 62% 수준까
지 떨어졌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는 해의 영업망 붕괴와 글로벌 시장환
경 악화에 따른 오더 부족이 원인으로 꼽
힌다. 여기에 노사 특별합의에도 노동조합
내부 헤게모니 다툼으로 인력 재배치가 이
뤄지지 않는 등 생산 효율성 저하도 다
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9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
난해 4월 해외자본 유치로 기사회생했지만, 경영 정상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업 오더 부족으로 지난 3월 공장 가동률
이 역대 최저치인 62% 수준까지 떨어졌
다.

영업망 붕괴에 따른 오더 부족, 공장 가
동률 저하, 글로벌 시장환경 악화가 겹치
면서 금호타이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생산 효율성 궤해 이를 돌
파하고자 했다. 생산운영계획을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화한다는 방안이
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
행하던 중 자신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
지 않자 갑자기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조
기 선거에 들어갔다. 사측 파트너인 노조
측이 사라진 것이다.
생산 효율화를 꾀하던 사측은 손발이 묶
이면서 경영 악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 같

은 비상 상황은 노조 선거가 끝나고 새 집
행부가 안착할 때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
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는 17일 새 집행부
를 뽑는다. 광주대표지회장·수석부지회장
·사무국장과 곡성 지회장·사무국장 등 집
행부 5명을 선출한다. 새 집행부 임기는 2
년이다.
지난 8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노조
내 4개 사조직(민노회, 노동과희망, 민사
회, 현장의힘)에서 각각 후보를 내 4파전
이다.
한 노조원은 "회사가 처한 위기 상황과
는 무관하게 후보자들이 난립했다"며 "안
타깝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후보가 난립하면서 선거 이후 후폭풍도
예상된다. 노조 내부 화합과 노사간 합리
적인 협력이 결집될지 될 것이라는 우려
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 4월 '경영정
상화를 위한 노사 특별합의'를 통해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되면서 "2017년부터 3년
간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임금 동결과
무파업 선언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됨
에 따라 노조 선거가 조기 실시된다는 점
에서 노조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
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의 생존과 미
래 존속의 향방은 노사관계에 달려 있다"
며 "회사 상황을 이해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노조 집행부가 탄
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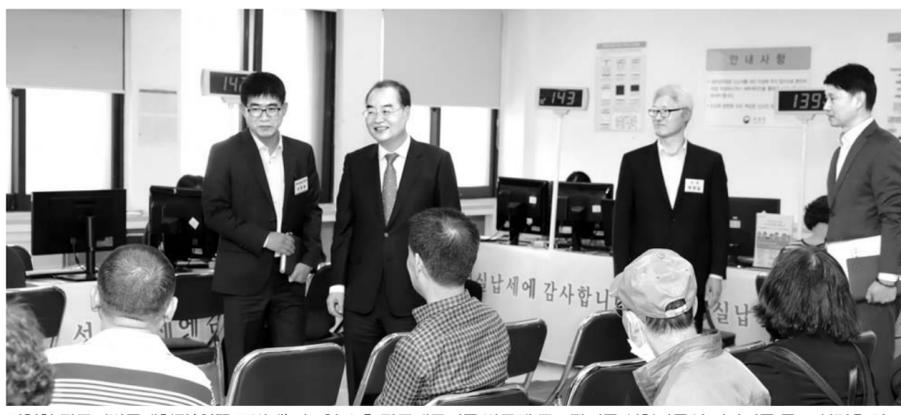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02.01 (-66.00)	↓ 금리(국고채 3년) 1.71 (-0.01)
↓ 코스닥 724.22 (-21.15)	↑ 환율(USD) 1179.80 (+10.40)

코스피 미·중 무역전쟁 공포에 급락

7개월만에 최대 낙폭
2102.01에 거래 마쳐

코스피가 9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감에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00포
인트(3.04%) 내린 2102.01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15일의
2097.18 이후 약 6달 만에 최저 수준이
다.
특히 하루 낙폭과 하락률은 지난해 10
월 11일(98.94포인트·4.44%) 이후 약
7개월 만의 최대를 기록해 투자자들에게
검은 10월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8.22포인트
(0.38%) 낮은 2159.79로 시작해 시
간이 흐르면서 낙폭을 키웠다.
이영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가 가장 큰 악재
로 작용한 가운데 최근 '사자'를 이어온
/연합뉴스

김형환 광주국세청장, 근로·자녀장려금 현장 직원 격려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9일 오후 광주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일 광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서, 나주세무서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청창구를 찾는 방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확대된 제도로 인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대상이 지난해보다 24만9000 가구(88.6%) 증가한 65만 7000 가구에 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지난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3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은 5월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김형환 청장은 "수급 대상자가 빠짐 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공용충전기 이용 협약'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9
일 오후 제주 국제전기차 엑스포 행사장
에서 4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와
'한전 공용충전기 제공 및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준호 한전 에너지
신사업부장, 정민교 대영채비(주) 대표,
박용희 (주)스프리트 대표, 유동수 (주)
에버온 대표, 한진희 (주)파워큐브코리아 대
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공용 충전인
프라를 충전사업자에게 개방하고, 충전
사업자는 한전의 충전인프라를 활용하
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한전 공
용충전기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존 3개
사에서 7개사로 늘어나게 되며, 한전과
협약된 사업자의 회원은 한전의 공용충
전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충전사업자는 한전이 구축한 공
용 충전인프라를 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여건을 확
보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
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장 활성화가 기대
된다.
한전관계자는 "한전은 공용 충전인프
라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파트너사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고객들에게 다양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한전 공
용충전기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존 3개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보해 복분자주 벨기에·네팔 간다

프랑스 이어 두번째 유럽 진출
네팔 복분자·임새주 3만병 수출

'보해 복분자주' (사진)가 올해 벨기에와 네팔 시장에 진출한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9일 "보해 대표 제품인 복분자주 5000본이 올해 벨기에로 수출되고 오는 6월에는 네팔 수출을 위해 복분자주와 임새주 3만본이 선적된다"고 밝혔다.

보해 복분자주의 유럽 수출은 지난 2007년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다. 수출인 전문업체 신라커머스를 통해 벨기에 시장에 진출하는 보해는 매쉬순과 임새주 등 주요 제품과 함께 유럽 소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앞서 지난 달에는 네팔 수출업체인 대창식품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해 복분자주와 임새주 등 3만본을 수출하기로 했다.
히말라야를 찾는 한국인 트레킹 관광객이 꾸준히 늘면서 한국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것이 보해 측 설명이다. 보해는 트레킹 관광객이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것이 보해 측 설명이다. 보해는 트레킹 관광객이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업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